

# 李 '인물론' vs 尹 '심판론' ...막판 부동산 잡기 총력전

李, 위기속 안정론 부각  
서울·2030에 화력 집중  
尹, 호남 등 외연확장 행보  
단일화 효과 극대화 시도

3·9 대선 경쟁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최종 승부'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이 후보는 '인물론'을 앞세워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맞서고, 선거 막판 '위기 속 안정론'을 부각하고 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연일 현 정부·민주당을 맹폭하면서 단일화 이후 자신감이 붙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6일 "사전 투표를 통해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면서 "선거가 진행될 수록 윤석열 후보의 단점이 두드러지고 있는 반면, 이 후보의 능력이 돋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의 인물 경쟁력과 경제·국민통합·정치개혁을 골자로 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구상을 최대한 부각, '유능 대 무능 프레임'을 다시 굳히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야권 단일화 효과가 어느 정도 찾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안 대표 지지자들의 반발로 후폭풍이 이어지며 단일화 역풍이 부는 데다 위기의식을 느낀 민주당 지지층도 결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텃밭이면서 국민의당 지지세도 일부 있었던 호남의 최종 사전투표를



서울 도봉구서 유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도봉구 도봉산 입구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50%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국정안정론도 남은 사흘간 부동산 공약의 주요 키워드로 꼽힌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25만 명 돌파,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경제 불안, 북한의 잇따른 도발, 산불 발생 등 국난의 상황에서 이 후보가 당선돼야만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점한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던지겠다는 것이다.

이에 이 후보는 6일 서울 강북에서 집중 유세를

했고, 7일 제주·부산·대구·대전을 잇는 전국구 유세 후 다시 서울·경기를 찾는다.

세대별로는 이번 선거의 캐스팅보트로 여겨지는 2030 청년 표심의 유동성이 크다고 보고, 청년 정책 등을 통해 이들을 최대한 끌어오기 위한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다.

국민의힘 윤 후보는 대선을 사흘 앞둔 6일부터 외연 확장과 국민통합 메시지를 한층 더 강화한다. 양강 후보의 지지층이 이미 최대로 결집했다고 보고, 보수진영 대권 주자로는 이례적으로 호남과



경기도 파주서 유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2030 세대를 파고들어 기반을 넓히는 차별화 캠페인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최대 적전지인 수도권 유세에 막판 화력을 쏟아부을 방침이다. 안정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수도권 유권자들의 압도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현 정부 책임론도 지속해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7~8일 안 후보와 두세차례 추가 합동 유세를 추진 중이다. '아름다운 단일화'를 강조하

기 위해 안 후보와 서울 도심에서 마지막 유세를 함께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또 윤 후보는 현 정권에 대한 공격 수위도 높이고 있다. 윤 후보는 6일 북한의 전날 9번째 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패를 확인하는 조종(弄鐘)"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마치 이것이 실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기 행각을 무능으로 살짝 덮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9일 코로나 확진·격리자용 임시기표소 없앤다

선관위, 사전투표 혼란 사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9일 대선 본투표일에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용 임시기표소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사전투표 이틀째였던 전날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투표소 부실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상 비공개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했다.

예초 선관위는 확진자용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지 않고 일반 유권자 투표 종료 후에 투표소 내에서 투표하는 방안과 임시기표소를 설치하되 투표용지 보관함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 등 두 개 안을 보고했으나, 여야 위원들과 논의 끝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지 않는 방향에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선관위는 또 대선 사전투표에서 불거진 각종 문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과의 뜻을 밝히며 7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은 6일 "사전투표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지적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전투표 부실 논란 관련 중앙선관위 현안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차장은 "의원님들이 오늘 말씀하신 것을 100% 수용한다"며 "조금 늦었지만, 중앙선관위에서 사·도 위원회 실무자들 의견을 한 번 더 들어 수렴했고, (확진자·격리자 투표 관련) 2안을 만들어서 내일 10시 긴급위원회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광주 선대위  
72시간 비상행동 돌입

더불어민주당 '광주 기언지 선거대책위원회'가 대선 막판 '72시간 비상행동'을 선언하며 이재명 지지를 호소했다.

광주 기언지 선대위는 6일 광주시당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72시간 비상행동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은 "뜨거웠던 광주의 사전투표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달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호남이 기여한 사천투표의 신기록을 썼다"며 "검찰공화국, 야합공화국을 막겠다는 간절함 바람이 기록적인 사전투표율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투표에 참여하신 광주 시민 여러분께서 전국 곳곳의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 주실 것을 호소해 달라"며 "이재명 후보도 2002년 가졌던 간절함과 절박함을 잊지 말고 승리를 간절히 꿈꿔달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진보정당' 주말 광주서 막판 세몰이

정의당 심상정·진보당 김재연 지지 호소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와 진보당 김재연 후보가 대선을 앞둔 마지막 주말과 휴일 광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심상정 후보는 지난 광주서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그동안의 정치가 대변하지 않은 목소리들을 풀어내는 것이 통합 정치"라며 "양당 독점 정치를 끝내고 5천만 국민이 골고루 대변되는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해 저에게 전폭적인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20년 동안 소외되고 힘없는 약자를 대변해 온 저와 정의당이 힘을 갖는 것이 진정한 통합 정치"면서 "이재명·윤석열 후보 모두 통합 정치를 말하고 있지만 큰 당이 선거 때 이기려고 작은 소수 정당의 세력들을 발밑에 끌어안는 것이 통합 정치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단일화로 사퇴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그를 비난할 생각이 없다"며 "모든 자원을 갖고 압박과 회유를 하는 거대 양당 사이에서 소신과 책임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

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럼에도 저는 20년 지켜온 진보 정치의 길을 꾸준히 가겠다"며 "이제 거대 양당 사이에 저 한 사람 남았다. 심상정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김재연 후보도 앞서 지난 4일 광주 지평초등학교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지난 7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킨 기득권 정치를 심판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새로운 정치의 시대를 열어낼 수 있도록 진보의 미래에 기회를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투표한 이유에는 "민주주의를 열어내고 지켜준 광주 시민께서 민주주의 가치를 넘어서서 불평등 세상을 끝내는 진보의 가치에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호소드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 경매물건 강력 추천

- 사건번호-2021타경 6943
- 소재지-광주 북구 신안동
- 대지-176평, 상업지역
- 경매일자-2022년 3월 10일

문의. 010-3605-5000